

## 국보관

### 중금당(中金堂) 진단구

#### 국보

714년에 완성된 중금당의 건설에 앞서, 땅의 신께 토지를 사용할 것을 알리고 새로 짓는 건물의 보호를 기원하는 일련의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의식의 일환으로 2,000 개에 가까운 귀중한 물건들이 중앙 제단이 될 자리 아래에 매장되었습니다. 그 물건들에는 불교에서 일곱 가지 보배로 여기는 금, 은, 진주, 수정, 호박, 마노, 유리가 사용되었으며 수정, 호박, 마노로 만든 염주, 은제 혹은 금박을 붙인 동합금제 그릇이나 장식품, 마귀를 쫓기 위해 사용했을 수정이나 호박으로 만든 육각형 또는 원형 통, 당초문양이 찍힌 은판으로 만든 장식품, 화폐[와도카이친(和同開珎, 화동개진: 일본에서 주조된 일본 최초의 동전), 개원통보(開元通寶: 중국에서 당나라 시대에 통용되었던 동전)], 금박을 붙인 동합금제 및 은제 거울, 동합금제 거울 등이 있습니다.

중금당의 기초에서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러한 진단구가 출토되었습니다. 1874년에 출토된 것은 도쿄국립박물관에, 1884년에 출토된 것은 고후쿠지 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훌륭한 물건들 대부분은 당나라(618~907년)에서 수입된 것으로 그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더 많은 진단구가 출토되었는데, 이 물건들 역시 고후쿠지 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